

네 번째, 목표를 향해 가는 중간중간에 가시적 성과를 입증하고 보여줬지. 최초로 우주유영을 했든지, 우주선끼리 랑데부에 성공했든지 도킹에 성공했든지 하는 진척 상황은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화젯거리가 되었어. 그만큼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분위기도 무르익지 않았겠니?

국회의 승인을 받고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에 방문했을 때 했던 연설이 기가 막혀. 자네랑 한 줄 한 줄 같이 읽고 싶어서 적어 왔어.

We choose to go to the Moon,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습니다.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at goal will serve to organize the best of our energies and skills,

그 목표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기술로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at challenge is one that we are willing to accept, one we are unwilling to postpone, and one we intend to win, and the others, too.

그 도전은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여 결코 미루고 싶지 않은 것이며, 우리는 이번뿐 아니라 다른 도전에서도 승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달에 가려는 의미를 설명한 위대한 연설이야. 달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소련에 지지 않도록 국가적 단련의 기회로 삼자는 거지. 요컨대 이기는 습관을 만들자는 거야.

사소한 것이라도 포기하거나 양보하기를 반복하면 만성이 되어 조직이 쉽게 좌절하게 되거든. 자네도 작은 성취들을 통해 이기는 데 익숙한 조직을 만들어야 하네.